

원희룡 장관, “국민을 볼모로 삼는 고리 끊어야”

- 경남 김해시 소재 레미콘 생산 현장 방문, 업계 관계자 우려 청취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현장 대응 2일차 행보로 11월 25일 오전 부산신항 현장점검에 이어, 오후 3시에는 경남 김해시 소재 레미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우려사항을 청취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시멘트·레미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”고 모두발언을 한 뒤 참석자들의 발언을 간담회 내내 주의깊게 경청하였다.
 -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“다음주 화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현장이 멈출 것”으로 전망하며, “공기(工期)가 생명인 건설현장에 큰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주변 지역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”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.
- 이에 원 장관은 “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연대의 요구사항들은 집단운송 거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들”이라고 언급하며,
 - “생산 후 대기시간이 매우 짧은 레미콘의 특성 상 집단운송거부의 여파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”면서, 레미콘 생산·공급업체와 소비자,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”고 말했다.
 - 또한, “정부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반영 하겠지만 국민을 볼모로 삼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,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”라고 언급하였다.
- 간담회 말미에 원 장관은 “레미콘은 건설현장의 혈액이며, 화물차주들의 집단운송거부는 결국 서민의 주거권마저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”고 강조하였다.

2022.11.25.

국토교통부 대변인